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8. 16.(수) 11:00 < 8.17.(목) 조간 > 배포 2023. 8. 16.(수)

브라질과 무역·투자·산업 분야 협력 강화방안 논의

- 한·브라질 국장급 산업협력 대화

한국과 브라질의 산업·통상 담당 부처 간 협력 통로(채널) 강화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앞으로 양국 간 무역·투자 확대와 산업협력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8. 16.(수) 오후 8시(한국시각 기준) 브라질 개발산업통상서비스부('23. 1월 신설)와 무역·투자·산업 분야 협력 강화방안 논의를 위한 국장급 화상회의를 개최하였다.

브라질은 인구 2.15억 명('22년 기준 세계 7위), 국내총생산(GDP) 1조 9,200억 달러(세계 11위)의 남미 최대시장이자 철광석 등 전통광물뿐만 아니라 니오븀, 니켈, 희토류와 같은 핵심 광물이 풍부한 자원 부국이다. 브라질에는 자동차・가전・바이오 등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으며, 최근 브라질이 신산업화(Neoindustrialization)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한국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기대된다.

이번 회의는 양국의 산업통상 담당 부처 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양국 간 ▲무역 원활화, 산업・기술, 에너지・자원, 디지털・그린・바이오 경제 등 분야에서 호혜적인 실질 협력 의제를 발굴하고, ▲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TIPF*) 등 협력 체제(메커니즘) 구축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Framework : 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

산업부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양 부처 간 협력 통로(채널)를 강화하여 우리 기업들의 사업 기회 확대뿐만 아니라, 현지 투자・진출기업의 애로 해소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4월 도미니카공화국과 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시작으로, 브라질 등 중남미 주요 국가의 산업·통상 담당 부처와 협력 통로(채널)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8월 중 우루과이와도 국장급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양국 간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통상정책국 중남미대양주통상과	책임자	과 장	류동희 (044-203-5630)
		담당자	사무관	성상훈 (044-203-563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